

헬로우 넥센

Vol. 82

HELLO NEXEN MAGAZINE

2021 신년호



헬로우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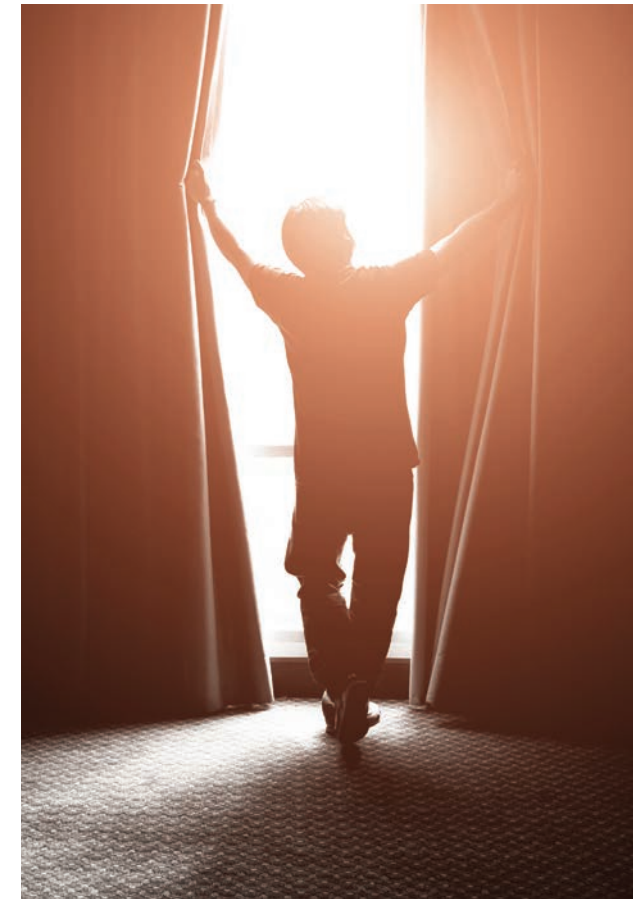



www.nexentire.com

New Chapter

새로운 시작

2021년 새로운 세계를 열다



A person wearing a mustard-colored tweed jacket is holding an open notebook. The notebook is open to two blank, lined pages. The person's left hand is holding a dark brown pen over the left page, and their right hand is holding the right page. The background is a dark, textured surface, possibly a wall or a piece of fabric.

나만의 목표를
세우며 새해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13

62

77

Cover Story 포스트코로나 시대,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만드는 넥센타이어. <헬로우 넥센>만의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ONTENTS

Special

- 10 넥센 24시간①
CEO와의 간담회
- 12 넥센 24시간②
넥센타이어-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 14 넥센 24시간③
넥센 어울림데이
- 18 넥센 24시간④
N젤 어린이집 연말연시 미니 전시회
- 20 with 넥센
넥센타이어 사회공헌활동

Listening

- 26 넥스트 넥센
유통의 판을 바꾼 넥센타이어
- 30 타이어&
모빌리티 신세계, 미래 주도권은 누가 질 것인가?
- 34 스페셜
'퍼플 라이브 디지털' 시즌 2 진행
- 36 넥센's 명작
넥센인이 추천하는 방구석 명작
- 40 뉴노멀& Work
일상에서 창의적인·유연한 사고 연습하기
- 42 NE Tube
넥스트레벨 GO 영상 속으로
- 44 #셀프소개
넥센인의 일상 속으로
- 48 넥센's 설문조사
넥센인의 2021년 새해 맞이

Healing

- 52 넥스트 피플
아주대학교 김경일 심리학 교수
- 56 케바케
내 취향대로, 내 손 안에서 즐긴다
- 58 트렌드 Now
주거 패러다임의 뉴 트렌드 '홈코노미'
- 62 조용한 Trip
제주 어딘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 68 컬처 큐레이션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면 좋을 영화&책
- 7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이슈
키워드로 보는 2021년
- 74 TV속 그 음식
모두의 간식 '핫도그'
- 76 타이어 Tech
충남 천안시 타이어테크 서북구점
- 80 News
- 82 독자마당

2021년 신년호 통권 82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발행일 2021년 1월 4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디자인 성우애드컴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pecial

2021년의 시작은 특별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 그 자체가 특별하니까요.

CEO와의 간담회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을 실천하다

글. N문화팀 정해철 팀장 사진. 장은주



2020년 11월 12일, THE NEXEN University 1층 북카페에서는 넥센타이어 CEO 강호찬 부회장과 사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2019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19년 상반기 입사자 중 마곡에 근무 사원 7명이 참석했다. 입사 후 소감, 이전 직장과의 다른 점 등 가벼운 주제는 물론 '좋은 회사란', '좋은 리더란', 소통과 동기 부여 방법, 넥센타이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가벼운 담소를 나눈 뒤 미리 준비한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간담회 일정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이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함께한다면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넥센타이어 경영철학인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에도 부합할 것이다.

넥센타이어-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글.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 사진. 장은주



자발적인 헌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넥센타이어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업무협약식을 맺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넥센타이어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부족한 혈액 수급과 자발적 헌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넥센타이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양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후 정기적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 사업장에 걸쳐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 지사에 2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넥센타이어는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진행하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 프로젝션을 기획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홍보하기로 했다.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가 되다

넥센 어울림데이

업무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조화일 것이다. 어울림데이에서는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넥센인의 화합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글. 정자은 글. 장은주



2020년 10월 29일, 더넥센유니버시티 내 이노 베이션라운지와 중정에서는 넥센타이어 조직 간 소통과 교류 활동을 위한 '넥센 어울림데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소통의 시간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다. 기존에 진행되던 단순한 호프데이를 넘어 각 팀이 게임을 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팀워크를 증진할 수 있었다.

'넥센 어울림데이'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글로벌품질 BS 소속인 품질경영팀, 품질보증팀, 고객만족팀은 윷놀이, 제기차기, 양궁, 전자다트, 당구 등의 게임을 펼쳤다.



전승탁 사원
품질보증팀

"코로나19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부서 사람들과 업무 외 활동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 깊었고요.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다시 예전 같은 세상, 분위기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효섭 책임
품질보증팀

"이런 자리를 처음 접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아 밖에서는 모임 수가 없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아쉬워하던 차에 떠나기 전에 동료들과 모이는 자리가 생겨 행복합니다. 제게는 더욱 남다른 자리네요. 타지로 가지만 본사에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업무와 관계된 소통은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행사는 중정에서 윷놀이와 제기차기로 시작했다. 대형 윷을 던지면 사람이 말이 되어 움직이는 방식이다. 야외 게임을 마친 후에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실내 게임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실내 게임을 하는 동안 치킨과 음료 등 간단한 먹을거리도 함께 즐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체 게임 최종 우승 팀 전원에게는 닭강정을 증정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넥센인의 화합의 장인 어울림데이가 이전처럼 자주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박지환 사원
고객만족팀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어울리거나 모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감사하고 덕분에 힐링이 되었습니다. 팀원 간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스트레스도 풀렸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이전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autime day

<전략마케팅 BS>의 어울림데이 현장



<T&S 영업 BS>의 어울림데이 현장



<해의 영업 BS>의 어울림데이 현장

천사들의 작품 속으로

N젤 어린이집 연말연시 미니 전시회

N젤 어린이집 아이들의 미니 전시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행복한 2021년을
맞이할 아이들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보자.

정리. 정자은

N젤 어린이집 양산캠퍼스



추운 겨울을 반기는 마음을 자신의 얼굴을
넣은 산타와 눈사람으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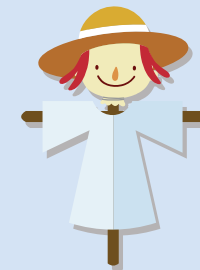
N젤 어린이집 창녕캠퍼스

산 속 친구인 다람쥐를 주제로
미술 활동을 펼친 아이들의
작품이 인상적이다.



N젤 어린이집 마곡캠퍼스

자연을 물들이는 천연 염색으로
가을을 표현한 어린이집 친구들.
찰흙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를 만들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다

넥센타이어 사회공헌 활동

글. 문화혁신팀 유재훈, 김희진 책임



사랑의 연탄 나눔



2020년 11월 13일, 더넥센유니버시티 임직원 12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20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감염에 대한 우려로 봉사 신청이 크게 줄며 전국적으로 연탄 후원이 크게 감소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전국에서 연탄 나눔 활동이 재개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넥센 임직원과 함께 인근 강서구 일대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주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거리 간격 유지, 불필요한 대화 자제 등)을 준수하는 가운데 시작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은 5가구에 총 1,000장의 연탄을 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연탄 나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참여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임직원의 마음이 담긴 연탄과 함께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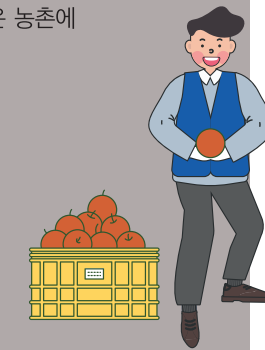
양산공장은 고구마 10kg 400상자를 2020년 11월 11일 양산시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 활동을 펼쳤다. 넥센타이어가 기부한 고구마는 양산시 관내 사회복지관 다섯 곳에 배분해 400가정으로 전달했다. 넥센타이어는 해마다 고구마뿐 아니라 임직원이 직접 김장을 담가 지역사회와 나누는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이웃 사랑 핫고구마 나눔' 행사로 대체했다.

이웃 사랑
핫고구마 나눔



창녕공장은 2020년 11월 6일 창녕공장 주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는 가을철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기획했다. 임직원 13명은 창녕군 유어면에 위치한 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단감 수확과 포장 작업을 도왔으며, 자연재해로 떨어진 과실을 수거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례없는 긴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농촌 일손
돕기





Listening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귀기울이고
들어주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진정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유통의 판을 바꾼 넥센타이어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에 이어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까지,
뉴노멀 시대에 맞게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Rental과 넥스트레벨 GO를 만나보자.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사진. 스튜디오그린비

넥스트레벨 Rental

'소유'보다는 '구독/렌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며 렌탈 품목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정수기부터 의류, 커피머신,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미술품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분위기다. 이제 렌탈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시작된 넥센타이어의 렌탈 서비스는 무엇인지, 무엇이 리뉴얼 됐는지 살펴본다.



넥스트레벨 Rental '무상 보증 제도' 추가돼

넥센타이어는 2015년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Rental'을 론칭했다. 렌탈 서비스는 렌탈은 물론 정기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덕분에 고객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이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렌탈 기간 동안 높은 품질의 타이어로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서비스는 '알뜰케어' 렌탈과 '안심케어' 렌탈로 나뉜다. 최근에는 주행 중 파손이나 조기 마모되는 부분까지 무상 교체해주는 '무상 보증 제도'도 도입했다. 고객이 필요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자유 렌탈' 서비스도 인상적이다.

여기에 'GS THE FRESH' 매장과 'GS25' 편의점에서도 고객이 편리하게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렌탈 계약 기간 만료 시 타이어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덕분에 타이어를 반납해야 하는 부담도 줄었다. 타이어 렌탈 시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GO'를 이용할 수도 있다.

넥스트레벨 GO



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다.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역시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이며, 유일한 비대면 방문 장착 서비스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타이어 교체 넥센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타이어 교체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GO'를 론칭해 소비자 중심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또 제조사인 넥센타이어가 직접 타이어를 교체해줘 기업의 신뢰도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벨 GO'는 타이어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차량과 함께 고객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방문해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넥센타이어만



서비스 지역 확대까지

'넥스트레벨 GO' 서비스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울산에서 이용 가능하며, 아산, 진천 등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추후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픽업&딜리버리 서비스'

타이어 전문가가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해 차량과 키를 수령, 타이어 전문점에서 타이어 교체 후 다시 가져다주는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10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다.



모빌리티 신세계, 미래 주도권은 누가 질 것인가?

내연기관차 130여 년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차의 공습' 때문이다. 특히 미래형 무공해차인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의 흐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가들은 4~5년 뒤면 친환경차가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왜 친환경차인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형 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은 170만~180만 대로 이 중 친환경차는 7만여 대다. 전기차의 누적 판매 수는 13만여 대, 수소전기차는 겨우 1만 대를 넘어섰다. 수치만 보면 아직 전위부대라 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친환경차의 판매량과 보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글로벌 제작사들은 전기차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에 한창이다. 내년 중반부터 전기차 춘추전국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전 세계를 주름잡은 미국 테슬라 전기차도 선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친환경차 공습의 주요 배경은 환경오염이다. 2020년 여름, 장마가 무려 53일간 지속되었고, 특히 국지성 폭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모두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도 친환경차,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차 보급은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산화탄소 총량제, 디젤차 규제, 이산화탄소 거래제,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제적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

해외 여러 나라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우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나 독일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학적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양산형 모델 투입과 급속 충전 인프라 조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국가별로, 지역별로 주력 모델이나 대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역시 '친환경과 무공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있다.

전기차, 어디까지 왔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약 과반으로 엔진과 변속기 같은 복잡한 부품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자리를 차지한다. 생산 라인도 크게 변해 앞으로 약 10년간 생산직 가운데 약 40%가 줄어들고 라인도 단순화되는 만큼 지난 100년간 구축한 시스템이 크게 뒤바뀐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미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위기가 닥치는 경착륙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업종 전환과 전환 교육이 더욱 요구되며, 전기차 정비나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을 위한 새로운 미래 기술 인력 양산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전기차의 장점은 제작자뿐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해 고장율이 낮고 소모품 교환도 적어 관리하기 쉽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1회 충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점차 늘어나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점이 점차 대두하기 시작했다. 충전 인프라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머지않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치열하게 경쟁할 체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보조금 없어도 구매할 수 있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활성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수소전기차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책임질 수소경제의 중심에 수소전기차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수소의 생산, 이동 및 저장 등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이 많지만 현재 보급 가능한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상생하는 미래의 차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다. 두 차종의 부품 공유율은 60~70%에 이르고 전기에너지 생산 방법만 다른 만큼 향후 역할을 달리하면서 상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장거리 버스나 트럭은 물론 건설기계 등은 수소전기차가 담당하고 중·단거리 이동은 전기차가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향후 협조와 각기 영역을 담당해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서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는 뜻이다. 정부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강화된 정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도심지 아파트에 전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충전 방식 지원,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 통합

모델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충전시설에 지붕을 씌워 감전이나 누전 사고를 예방하고 충전기가 고장 나지 않도록 민간 구분 없이 관리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빌라와 연립주택은 주차장이 좁아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욱 매진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충실한 일선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력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퍼스트 무버'로서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넥센타이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퍼플 라이브 디지털' 시즌 2 진행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퍼플 라이브, 디지털' 시즌 2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넥센타이어의 '퍼플 라이브, 디지털'은 고객과 온라인상의 접점을 찾고자 기획한 디지털 콘텐츠로, 2019/20 프리미어리그 시즌 공식 파트너사인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 경기를 온라인상에서 응원하는 형식으로 첫선을 보였다.

2020/21 새롭게 선보인 '퍼플 라이브, 디지털' 시즌 2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넥센중앙연구소(더넥센유니버시티) 스튜디오를 활용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2020년 11월에는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UAE와 태국에서 현지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응원을 진행한 바 있다.



2020년 12월 13일 새벽 2시 30분(한국 시간),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의 경기를 응원하는 2020/21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국내 온라인 라이브 응원 방송을 마련했다.

명실상부 '디지털 세대'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파 온라인 프로게이머이자 크리에이터인 정재영과 크리에이터 김희진이 함께 했다. 정재영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퍼플 라이브, 디지털' 생방송 도중 실시하는 퀴즈 이벤트의 정답자 가운데 선정된 분께는 맨시티 굿즈(유니폼 저지, 보조 배터리, 차량용 방향제, 텀블러 등)를 증정했다. 또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넥센타이어 X 맨체스터시티 파트너십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행사를 마련해 고객과 온라인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넥센인이 추천하는 방구석 핑작

새해를 알차게 열어줄 OTT 작품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방구석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집에서 재미있고 아늑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넥센인을 위한 '방구석 핑작'을 소개한다.

정리. 정자은



(CP)원동파트 이광일 사원

추천 작품: <종이의 집>



넷플릭스 엘리트들 시즌의 주요 내용은 사랑, 범죄입니다. 외부에서 온 전학생들 3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범죄, 연애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구성됩니다. 현재 시즌3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미드와는 다른, 스페인 드라마만이 갖는 디테일한 재미가 스토리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전략팀 김혜인 사원

추천 작품:
<에밀리, 파리에 가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종이의 집>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품을 시즌4까지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종이의 집은 천재 교수와 범죄 전문가들이 한명씩 만나 각 사연과 사건을 풀어가면서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여 긴장감을 주는 스토리가 인상이 깊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시청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와 상상 초월의 인질극을 벌이는 작품입니다. 인질에 심리 범죄자에 심리 그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벌이는 <종이의 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작품입니다. 좋아하게 된 이유는 시즌 1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심리를 이용하여 인간이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스토리 전반에 보여준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겪는 상황이 재미있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YP품질팀 박두진 사원

추천 작품:
<엘리트들 시즌 1~3>



넷플릭스의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아시세요? 낭만적인 도시 파리 한 회사의 마케터로 파견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주인공 에밀리의 좌충우돌 파리 라이프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에밀리는 직원들의 텃세 파리의 색다른 문화 속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씩씩하게 잘 이겨냅니다. 드라마 중간 중간, 에밀리와 출연진의 패션, 특히 파리의 예쁜 거리를 보는 재미가 쏠쏠한 드라마로 강추합니다!! 요즘같이 마음껏 여행 다니지 못할 때, 대리 만족하게 된다 할까요?ㅋㅋ

YP인사지원팀
김재영 책임

추천 작품: <앱스트랙트>



제가 좋아하는 예술/문화 분야에서 찾아 본 앱스트랙트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시청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아서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다큐멘터리 특성상 지루할 것만 같았던 내용에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고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그러한 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라스트킹덤>이라는 작품을 즐겨봅니다. 이 작품은 실존했던 영국 철왕국 중 웨섹스를 소재로 다룬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노섬브리아 출신 우트레드라는 인물이 바이킹 데인족 노예로 시작하여 웨섹스의 영웅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일주일 만에 시즌4까지 모두 보았을 정도로 몰입감이 상당히 좋았던 작품입니다. 특히 등장인물 중, 웨섹스의 알프레드를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로 꼽고 싶습니다. 지병으로 몸이 점점 약해지지만, 큰 위기 때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즌 1의 1화, 8화, 시즌 3의 5화, 9화에서 알프레드라는 인물의 매력을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CP)원자재관리계
김건호 사원

추천 작품 : <라스트킹덤>



왓차에서 <베스트 오퍼(The Best Offer)>라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베스트 오퍼>는 '경매에서의 최고 제시액' 또는 '인생과 맞바꿀만한 최고의 명작을 만났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최고가란 의미라고 합니다. 시네마 천국의 감독인 주세페 토르나토레와 사인의 제프리 러쉬(캐러비안의 해적에서 바르보사 선장 역할)가 같이 작업한 영화이죠. 거기다 영화 음악은 엔리코 모리코네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세페 감독의 영화인 줄도 모르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덩작! 인정. 줄거리는 유명한 경매사이자 고미술품을 보기만 하면 바로 진품과 가품을 구분해내는 전문감정인이지만, 괴팍한 성격에 결벽증도 있고 평생 여자와 사귀어 본 적 없는 주인공. 어느 날 대저택에 사는 젊은 여인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으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후반부에 반전도 있고 꽤 몰입감이 있는 영화!



내부회계관리팀
정민환 팀장

추천 작품: <베스트 오퍼>



생산기획팀
박인혁 책임

추천 작품: <투게더>



넷플릭스에서 <투게더>. 펜을 찾아 떠나는 해외여행!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동남아 이곳저곳을 순방하는 작품으로, 주말에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기에 좋은 힐링 버라이어티 작품입니다. 휴가가 보장되고 있는 넥센인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해외여행, 갈수 없는 마음에 추천해봅니다.



넷플릭스의 체스 드라마 <퀸즈 갬빗(The Queen's Gambit)>을 추천합니다. 독립적이고 섬세해 오히려 신경쇠약이 있는 듯한 수학 전공자인 어머니와 같이 살던 '베스 하먼'이라는 꼬마가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 고아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아저씨와 함께 체스를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체스의 천재. 어린나이에 이미 대학생들마저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으로 베스는 입양됩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아내는 무대 공포증으로 꿈을 포기하고 무료한 날들을 담배, 술, 신경안정제로 버티는 그런 가정.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내는 돈이 필요 했고 베스는 자신을 돌볼 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서로 의지하게 되었죠. 베스는 체스대회 상금을 헌팅 하고, 아내는 베스를 돌보며 어찌면 매니저로, 어머니로 함께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천재 베스는 사회와 일(체스), 관계가 모두 가장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을 시작하게 된 베스. 결말은 정말 좋았습니다. 체스를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재가 99퍼센트의 땀과 1%의 재능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은 완전체가 된 100을 발휘하는 천재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베스도 1%재능으로 시작해 시시한 세상을 맞아 신경안정제와 술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을 내려 줄 상대와 시대가 그녀에게 불행, 고난, 역경을 만나며 99% 땀을 흘리게 만들어 그녀를 완성하며 드라마도 완성됩니다.



품질보증팀
이명수 선임

추천 작품 : <퀸즈 갬빗>



일상에서 창의적인·유연한 사고 연습하기

뉴노멀 시대에 적절한 인재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급변하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새롭게 개편되는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습관을 연습하는 것이다.

글. 정자은 참고 <나는 왜 괜찮은 아이디어가 없을까><흙처라 아티스트처럼><유연한 사고의 힘>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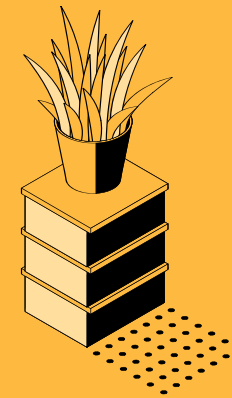
창의적인 사고의 시작 '관찰'

업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세상을 넓게 보지만 관찰에도 뛰어난 재능을 갖는다. 스티브 잡스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의 능력은 평소 관찰하는 습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여가 시간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관찰하며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습관이 필요하다. 도움이 되거나 영감을 줄 것 같은 정보라면 사진, 메모, 녹음 등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부터 연습해보자.



커피의 역발상

모방은 창조 어머니라고 했다. 어차피 사람의 손은 완벽하게 커피 하지 못한다. 먼저 누구를 카피할지 정한다. 이왕이면 영웅을 카피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타일만 훗치는 게 아니다. 영웅의 정신 세계는 무엇인지 역발상을 해보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어떤 의도에서 그런 제품, 마케팅 전략, 작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위한 세 가지 습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관찰 팁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다. 직장인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이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창의적이고 참신한 일을 만들어낼 기회를 놓친다. 둘째 기존의 사고 패턴을 벗어나 '수평적 사고'로 변화시켜보자. 눈에 익은, 편안한 환경과 일을 고수하는 방식은 창의적인, 융통적인 사고와 거리 멀다. 셋째는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보며 느린 사고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느리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 편안함, 직관, 성급한 결론 대신, 존재 자체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잠시 이별하기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서 여러모로 유용하다. 하지만 유연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방해 요소가 된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뇌와 눈, 모든 신경의 휴식 시간을 뺏는다.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답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나 SNS로 다량의 정보를 흡수한다. 유연한 사고의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는 훈련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자. 마음은 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게 방랑한다. 또 새로운 발상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넥스트레벨 GO 영상 속으로

'계산남' 편 vs '직장인' 편

2021년 신년호에서는 국내 업계 최초의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의 '계산남' 편과 '직장인' 편 영상을 소개한다.

정리. 정자은

허세 없이 '뚝' 부러진 비대면 서비스 - #계산남 편



0:05
간만에 뭉친 친구들 모임 자리. 너무나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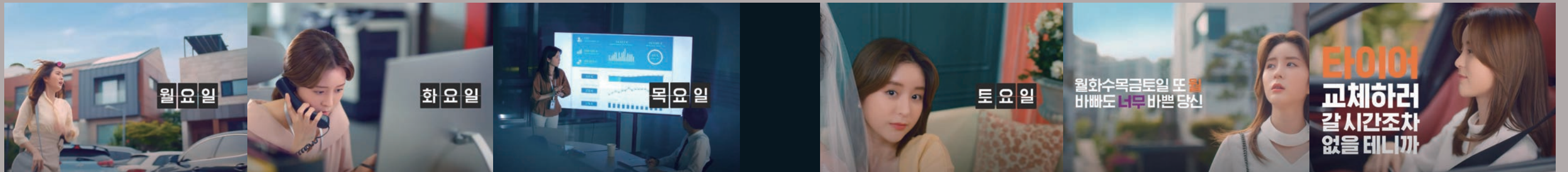
0:08
레드 와인부터 강원도 횡성산 꽃등심까지. 맛있는 메뉴들을 한 친구가 쓴다고 한다.

0:21
저마다 자기가 내겠다고 더 시킨 덕분에 회식비는 상당해졌다.

0:24
이때 더치페이로 당당하게 외치며 카드를 던지는 한 남자.

0:43
“허세 부리지 않고 계산 하나는 틀림없는 당신이 타이어 교체하는 데 헛돈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깐.” 비대면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 #넥스트레벨 GO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타이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한다 - #직장인 편



0:02
월요일을 극복하며 일터로 달려 나가는 직장인.

0:07
화요일은 월요일보다 더 바쁘다.

0:17
목요일만 참으면 신나는 금요일!

0:24
토요일도 쉴 틈 없이 주말 행사로 열일 중.

0:31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타이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합니다!” 타이어 교체하러 갈 시간조차 없는 당신을 위한 비대면 타이어 방문 교체 서비스 #넥스트레벨 GO

넥센인의 일상 속으로

2021년을 기분 좋게 시작할 넥센인의 소중한 추억, 어떤 것이 있을까? 신년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긍정의 힘으로 이끌어주는 '일상'일지 모른다.

정리. 정자은

한승훈 책임
ERP팀



2020년 1월 10일에 예쁜 지우가 태어나고 예쁘게 잘 키우고 있어서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0일 돌잔치 전 스튜디오에서 돌전촬영을 해봤어요. ㅋㅋ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걱정했는데 의아하게 이렇게 예뻐도 되는지ㅋㅋㅋ

김남희 선임
모터스포츠 PJ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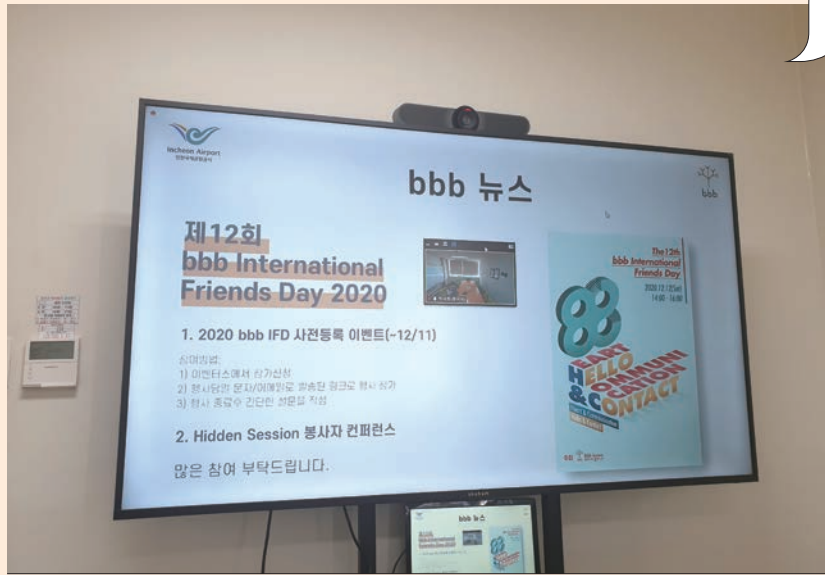


첫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에게 더 많은 경험을 주지 못해 다소 안타까운 2020년이었습니다. 인파를 피해 한적한 공원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걸음마 연습을 하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평생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승은 연구원
특성연구팀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저는 지난 겨울에 포기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뜨개질 할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뜨개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엉켜버린 실타래를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심지어 엉켜버린 실을 풀기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난 후의 사진입니다. 다행히도 사진 찍고 1시간 후에 다 풀었습니다! 이제는 제 실도 목도리가 될 수 있겠죠? 저의 뜨개질을 응원해주세요~^^



탁세원 선임연구원
개발지원팀

매년 연말에 행사해오던 BBB Korea 비영리 외국어전화통역자원봉사 관련 International Friends Day가 올해는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모바일 및 PC를 활용한 동영상 참여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은진 영화감독의 진행과 더불어 온라인행사 플랫폼인 웨비나어플을 사용해 참석하게 되었고, Talk Concert가 끝난 뒤 작은 Music Festival에는 스텔라 장이라는 싱어송라이터 유튜버가 참석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큰 무대에서 참석하여 보던 행사가 온라인 랜선콘서트로 참석해서 현재 처해진 상황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Digital System을 활용해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최재환 팀장
인재개발팀

[코로나19 일상풍경]
이제 모든 놀이 활동은 집에서
#집콕육아 #빌런은아빠의몹
#메소드연기그만 #망토언제벗어



이영남 사원
내구성능연구계



캠핑장에서 아빠는 항상 짐꾼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킨 적도 없는데, 미숙하지만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도와 줄 거 없냐고 물어도 보내요. 4살 막내도 알아서 자기 장난감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

이희석 파트장
(YP)설비보전1파트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문자에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다 보니 헌혈 100번을 하고 명예장 수여 및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네요!!



넥센인의 2021년 새해 맞이

2020년은 코로나19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에 사는 넥센인의 새해 다짐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2021년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리. 정자은 (설문 기간 : 2020.12.10.~2020.12.11) *참여자: 157명(중복응답 가능)



Q. 새해를 맞이해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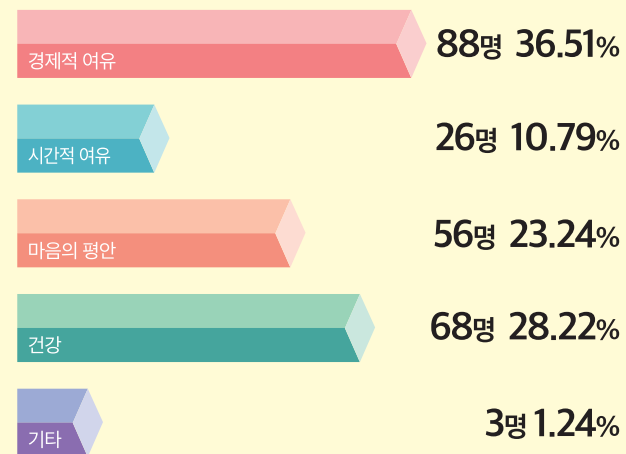
- 👤 신현명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 👤 곽재련
같이 정진합시다
- 👤 김기현
하고자 하는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 박인혁
모두 자유를 만끽하는 한 해가 되길.
- 👤 곽진섭
2020년 잃어버린 시간 2021년에 회복합시다.

Q. 새해를 맞이하는 본인의 각오는?

- 👤 노성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살기.
- 👤 김수복
가족들 건강이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족의 건강을 살피겠다.
- 👤 노영우
마음의 여유를 찾고 겸손한 마음가짐!
- 👤 양현진
올해보다 여유로운 삶은 살고 싶습니다.
- 👤 김기호
후배들에게 꼰대처럼 보이지 않기.



Q. 매년 찾아오는 새해, 2021년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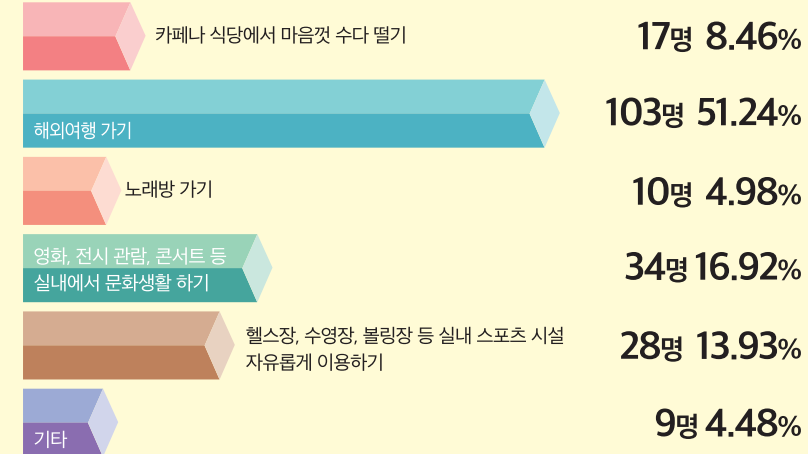
*가족의 행복 - 장우영
*마스크 없는 일상 - 손현정

Q. 2021년 새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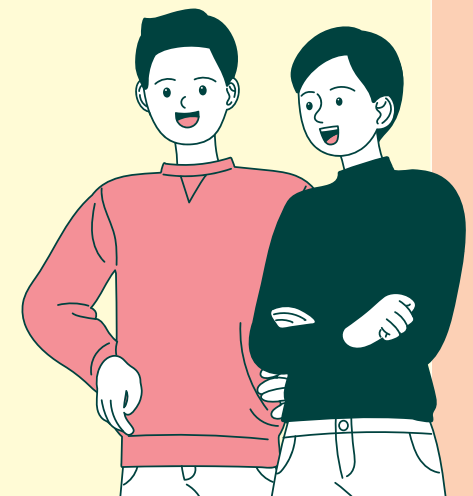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 황도인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로 떡국 먹기 - 이태길

Q. 2021년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국내 여행, 캠핑하기 - 김남수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만원 버스조차 그립습니다! - 김병갑





Healing

당연하게 여기던 휴식이
언젠가부터 생소하게 느껴지셨나요.

곁에 있을 때는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원하게 들이마시는 숨,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까지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즐기던 산책까지

일상 속 힐링에게 고맙단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생각의 순서를 바꿔라"

아주대학교 김경일 심리학 교수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김경일 교수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여전히 떨리고 설렌다. 같은 주제여도 청중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그에 걸맞게 설명하는 방식도 매번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글. 정자은 사진. 스튜디오 그린비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찾을 때, 자신의 삶도 새로운 모습으로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2021년에는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몇 년 전 넥센타이어 직원들에게 '접근과 회피동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던 김경일 교수를 만났다.

Q 심리학 박사이자 교수에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작가, 강연까지 늘 바쁘다고 들었다. 타이틀이 다양한데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원래 심리학자는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들어봤나. 작가는 보험판매원이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알기 위해 직접 자격증을 뒀다. 불법 판매, 단단계 판매의 현장을 보려고 그 물건 사러 갔다. 이처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봐야 강연, 수업이라는 안으로 들어와 가르칠 수 있다. 안에서 한 질문은 나가야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한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고인 물이 썩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 본다.

Q 학창 시절, 운동하다 공부를 선택했다.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테니스를 했는데, 고등학생 때 우연히 본 교수님이 멋져 보였다.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다. 심리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우리 때만 해도 진학 지도를 적성에 맞게 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아마 모의고사 점수가 4점만 높았어도 경영학을 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순간을 꼽으라면, 4점이 모자라 심리학과에 가게 된 것이다. 현재는 운이 더 좋아졌다. 당시 비인기 학과였지만 지금은 인기 학과 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니 말이다.(웃음)

Q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극단적 회피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나와 같이 운동한 선배들을 살펴보니 생각한 것보다 멋지지 않았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었다. 회피동기는 순간적으로 스스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줬다.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접근동기였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직업윤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Q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설악산에 가더라도 설악산에서 경치를 보는 대신 그걸 보며 입 벌리는 사람들을 봤다. 원체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심리학과는 잘 맞았다. 심리학은 크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환경을 바꿔 주는 것, 상담심리학과 인지심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상담심리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았다. 나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지심

리학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내게 맞는 심리학을 잘 찾았다.

Q 인지심리학을 쉽게 설명해달라.

인지심리학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해주는 심리학이다.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잘 바꾼다. 못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변화를 잘 만들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지심리학은 변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해주니 그 자체로 자신의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Q <0.1%의 비밀>, <코로나 사피엔스> 등 여러 권의 책을 냈다. 꾸준한 집필 활동의 비결은.

일주일에 한 편씩 쓴다. 10년째 썼으니 520편 정도가 될 것이다. 역으로 4개씩 묶으면 이런 콘셉트의 책이 되겠다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잡혔다.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습관이 되면 괜찮다.

about_ 김경일

김경일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 하에 인간의 판단과 의사 결정, 문제 해결, 창의성에 관해 연구했다. 대학과 기업, TV 등 다방면에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Q 강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매년 낯선 환경과 사람들 앞에 선다.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같은 주제로 강연해도 반응은 제각각이다. 10개 그룹에서 강연하면 각각 열 번의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예로 초등학생에게 심리학을 설명하려면 쉽게 말해야 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 바꾸는 거야. 1은 전혀 아니다, 7은 매우 그렇다, 4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숫자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과학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면 돼.” 집으로 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수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심리학 고문헌을 꺼내 봤다.

Q 2021년은 다른 새해와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만 할 것 같다.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운동 일정을 짜는 것이 계획이다. 오히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목표부터 세우면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보통은 나쁜 사실을 꺼내 보려 하지 않는다. 5~10년간의 나쁜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쁜 사실이라도 정확히 알면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Q <헬로우 넥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신년 메시지.

인간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셰프가 똑같은 재료로 조리법 순서만 바꿔도 전혀 다른 맛이 난다. 볶고 나서 양념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양념을 먼저 뿌리고 볶으면 맛이 상당히 달라진다. 2021년에는 일의 순서와 생각의 순서, 순서를 바꿔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운동 일정을 짜는 것이 계획이다. 오히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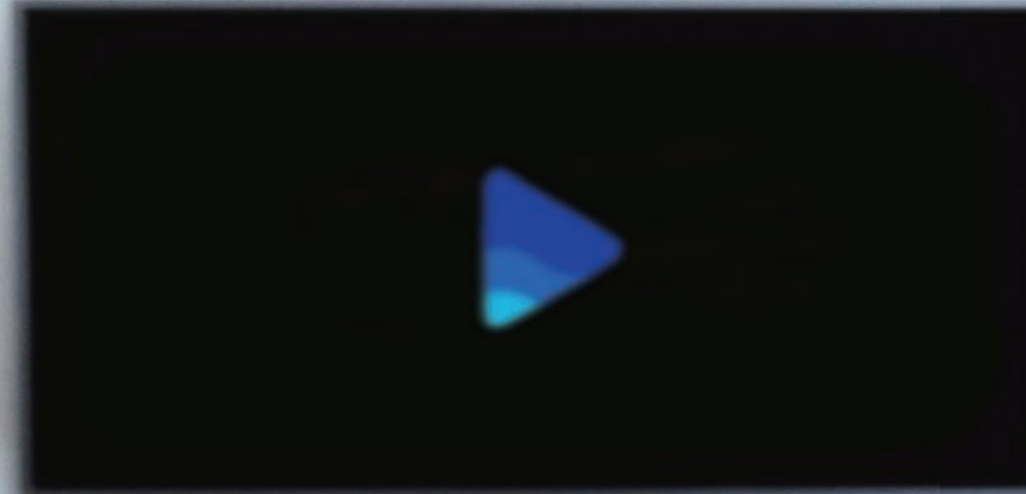


내 취향대로, 내 손안에서 즐긴다 지금은 구독형 서비스 시대

넷플릭스 & 왓챠 & 웨이브

빠른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는 현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상황으로 방구석 1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는 구독형 서비스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OTT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가 각기 어떤 특징을 내세워 구독자를 공략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글. 이경희



자체 제작 콘텐츠로
승부를 걸다



넷플릭스(NETFLIX)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2016년이다. 당시 넷플릭스는 세계 1위 영화 및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으로 떠들썩하게 시작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불만한 콘텐츠가 없는 게 큰 약점이었다. 국내 상륙 첫해에 무료 이용권을 뿌렸음에도 5만 명 정도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그친 넷플릭스는 2020년 현재 한국 유료 구독자 수 330만 명으로 그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넷플릭스의 성공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한국 구독자를 위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를 위한 파트너십과 공동 제작에 7억 달러를 투자했고, 한국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전 세계에 방영된 작품은 영화 <옥자>, 드라마 <킹덤 1·2>, <인간수업> 등 70편이 넘는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이런 콘텐츠와 함께 직관 서비스, 편리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4명까지 볼 수 있는 요금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상 추천 등이 그것이다. 공룡 넷플릭스의 독주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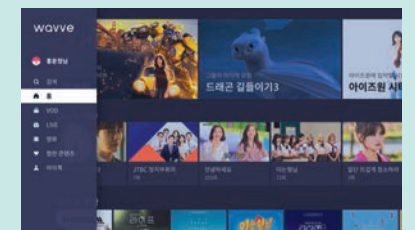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틈새시장을 노리는



웨이브(WAVVE)

웨이브는 2019년 9월 지상파의 OTT인 폭과 SK브로드밴드의 OKSUSU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탄생한 OTT 서비스 플랫폼이다. 웨이브가 여타 OTT 플랫폼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지상파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업체에서도 국내 드라마나 예능을 볼 수 있지만 시간 차를 두고 방영하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큰 장점이다. 그러나 OTT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바로 콘텐츠. 후발주자인 웨이브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파격적인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최초의 영화와 드라마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SF8>이다. 이 작품은 8인의 영화감독이 참여하며 TV보다 웨이브에서 먼저 독점 선공개하는 유통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앨리스>, <거짓말의 거짓말>, <나의 위험한 아내>, <좀비탐정> 같은 오리지널 드라마도 웨이브 구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웨이브는 향후 방송사, 독립 제작사, 영화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왓챠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왓챠(WATCHA)

왓챠는 토종 OTT 서비스 플랫폼이다. 2012년 영화 추천 서비스로 출발했으며, 2016년부터 VOD 부분만 따로 분리해 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왓챠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2018년에는 구글플레이가 집계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앱 중 매출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2억 개가 넘는 영화 평점 데이터베이스와 상세 후기를 활용해 구독자의 취향에 좀 더 잘 맞는 영화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으로 구독자를 유입해왔는데, 픽사나 마블의 영화, HBO <왕좌의 게임>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 제작한 박찬욱 감독의 첫 미니시리즈 연출작 <리틀 드러머 걸>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으며, 큰 화제를 모은 <체르노빌>도 킬러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힌다. 새로운 라인업 구성으로 치열한 OTT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왓챠는 최근 CJ CGV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 만능 공간이 되다 주거 패러다임의 뉴 트렌드 '홈코노미'

우리는 새해가 되면 카운트다운이나 해맞이를 위해 특별한 외출을 즐겼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 '코로나사피엔스'의 경제·문화 활동은 집 밖이 아닌 '집콕'에서 이루어진다. 안전하고 편한 집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즐기는 이가 늘어나면서 '홈코노미(Home+Economy)'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만능 공간이 된 집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글. 전설



집의 다기능화 '레이어드 홈'

그동안 집은 몸과 마음이 쉬는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단순히 쉬는 곳에서 나아가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의 진화가 요구된다. 재택근무와 언택트 문화 확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역할이 추가된 것이다. 홈오피스, 홈카페, 홈트 등의 신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 집은 재택근무자를 위한 오피스 공간이자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카페이며, 때로는 피트니스클럽이 된다. 이처럼 공간은 그대로인데 기능을 달리 하는 것을 두고 마치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는 것과 같다고 해 '레이어드 홈(Layered Home)'이라 부른다.

역사를 살펴보면 큰 전염병이 돈 직후 집의 기능이 보완된 예는 적지 않다. 19세기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상하수도과 위생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세기 스페인독감이 유행했을 때는 기술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렇게 집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진화해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집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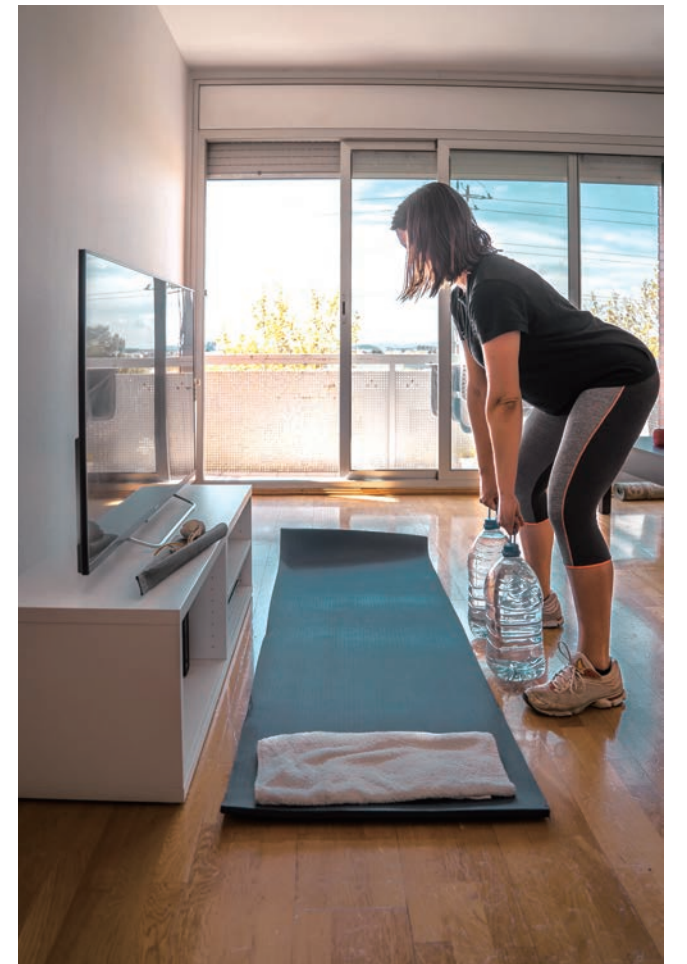
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다기능 레이어드 공간이다. 소비자 욕구를 읽은 건설업계는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알파룸(멀티룸)과 보조 주방을 설계에 도입하고 있다. 시대의 바람이 도면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거주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에도 새 바람이 분다. 집 거실, 발코니, 옥상에 텐트를 치고 집에서도 여행 기분을 내는 '홈캠핑'이 유행하면서도 시형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여행도 집으로 떠나는 시대. 집은 점점 다목적 복합 공간의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

#레이어드 홈

《트렌드 코리아 2021》 등 전망서에 소개된 새해 주요 트렌드. 집이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카페,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콘서트홀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라이프스타일을 공간에 적극 반영하고 꾸미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호섭 랜선
남친 광고



#라이브 커머스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유통 채널. '라방(라이브 방송)'이라고도 한다. 실시간 중계 하듯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유통가는 물론 다양한 패션, 잡화, 침구 기업들에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판로로 주목받고 있다.

집의 스마트화 '스마트 홈'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집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자 대형 건설사들이 앞장서 스마트 홈을 짓는 데 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첨단 기술을 주거 환경에 도입해 분양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한 분야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첨단 제균 시스템 기술'이다. 현대건설은 바이러스 살균·환기 시스템인 'H클린알파 2.0'을 분양 예정 단지와 오피

스텔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미세 먼지를 줄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실내 환기 시스템이다. 내부 오염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의 질을 높여 거주자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에 질세라 대림산업도 '바이러스 제로 시스템'을 도입한다. 차량이 출입하는 진입로부터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을 감지하고 신발 소독 매트, 신발장 살균기를 통해 위험 요소와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스마트 홈 기술은 바이러스 제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우건설과 삼성전자는 집 안팎에서 앱과 음성으로 모든 가전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 기술과 가전 케어 서비스를 분양 예정 단지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사생활 침해 방지 기술도 선보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람 대신 '벨보이 로봇'이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내부를 돌아다니며 시설 안내와 짐을 들어 주는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SF 영화 속 한 장면을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집 앞에서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홈



집의 온라인화 '온택트 홈'

집이 단순한 언택트에서 나아가 온라인을 통해 외부와 연결된 온택트(ontact)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VR 콘텐츠 등 '집콕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가 발전하고, 소비 트렌드를 읽은 기업들이 그들을 타깃으로 한 온택트 마케팅을 펼치면서 집이 온라인화된 것이다. 그 변화는 급성장하는 VR 관련 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 공간을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VR 콘텐츠 제작업체가 늘었고, 영상의 완성도 역시 높아졌다. 덕분에 집 안에서도 새로 입주할 아파트 내부를 3D 영상으로 둘러보고, 가상현실 속 미술관을 거닐 수 있게 됐다. 집콕족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소비문화도 등장했다. 흔히 '라방(라이브 방송)'이라고 부르는 '라이브 커머스'다. 실시간 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TV 홈쇼핑과 비슷하지만, 일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홈쇼핑과 달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소비

자와 판매자가 채팅과 영상으로 묻고 답하며 소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연말연시 대면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등을 통해 '접촉' 대신 '접속'으로 안전한 모임을 즐기는 것이다. 줌은 서비스 초기 대기업의 장거리 비즈니스 시 업무 목적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상회의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줌룸(Zoom Room)이 집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줌룸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정호균 세프의 인스턴트팟 랜선 쿠킹 클래스

#ZOOM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2020년 상반기부터 급부상했다. 최대 100명까지 모바일 화면을 통해 화상(비디오)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메시지, 파일, 이미지, 링크 등 전송도 가능하다.

제주 어딘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담머르해안길·창곶바위·안돌오름 비밀의 숲

제주도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곳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나무가 울창한 숲이 곳곳에 존재한다. 화산섬인 덕분에 자연이 만든 진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글. 정자은 사진. 장은주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화산재가 분출하면서 섬을 뒤덮었고, 그렇게 제주도의 신비로움은 시작됐다. 제주도 곳곳을 살펴보면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어디는 돌로 가득한 바닷가이고, 어딘가는 탁 트인 바다와 파도가 절경을 이룬다. 또 오름에는 이곳이 섬인가 싶을 정도로 울창한 숲이 펼쳐지기도 한다. 최근 블로그와 SNS에서 찾은 제주의 이색 장소를 소개한다.



<제주 담머르해안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제주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담머르해안길



바다노을, 감성사진 맛집

닭머르해안길

제주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닭머르해안길은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있다. 이곳은 일출, 일몰 모두 매력적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일몰 맛집'으로 유명하다. SNS에는 이곳의 감성 사진, 노을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노을이 질 때 주변이 분홍빛으로 번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은 제주올레길과 더불어 산책길로 조성되었다. 30분이면 걸을 수 있는 코스이며, 주변으로 난 길이 험하지 않다. 나이와 상관없이 잠시 쉬어 가는 산책 코스로 추천할 만하다.

닭머르해안길은 닭이 흠을 파헤치고 양쪽 날개를 펼친 모습 혹은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아 붙은 이름이다. 실제로 정자가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좌우를 바라보면 닭이 날개를 퍼덕이는 형상이 연상된다. 또 닭머르해안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암괴석과 유선형의 조간대 지형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예로부터 학자들이 모여 풍류를

즐거웠다고 전해진다.

이 해안길은 닭머르 입구에서 신촌포구까지의 구간이며, 길은 나무 데크로 이어진다. 닭머르 바위가 있는 곳은 나무 갑판으로 길은 만들어놓았다. 그 길 끝에서는 해안 정자가 여행객을 반긴다. 해안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장관이다. 날씨가 좋으면 햇빛으로 물드는 바다와 하늘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여행지와 어울리는 음악은



Keshi
<bandaids>

잔잔한 기타 선율이 위로를 주는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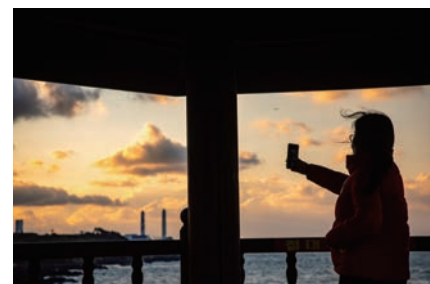


1. 닭머르해안길은 해안누리길 50코스로 제주올레길과 함께 유명한 산책길 중 하나다.
2. 낚시를 좋아하는 이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셀프샷 추천 스폿

-  - 해안길 전체가 보이는 길의 시작점
- 정자 위가 사진 맛집





**기이한 창콤바위,
편백나무가 인상적인 안돌오름 비밀의 숲**

‘안돌오름 비밀의 숲’은 안돌오름 근처에 위치한 비밀의 숲이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66-1을 검색하면 찾아갈 수 있다. 이곳은 사유지로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방문해야 한다. 지도를 따라가는 입구 근처가 비포장도로여서 길이 제법 험하다. 1시간이면 여유롭게 숲을 둘러보기 충분하다.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곳으로 생각보다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다. 숲속 편백나무길과 오두막, 의자 등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 스폿을 잘 구성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와 산이 가득하다. 제주 북촌리에 가면 특이한 모양의 바위를 발견할 수 있다. 바닷가 근처에 큰 바위가 있는데,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려 있다. SNS상에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 있다. 가운데가 뚫린 바위를 액자 삼아 인물이 나오게 한 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제주에서만

1. ‘안돌오름 비밀의 숲’은 안돌오름 근처에 위치한 비밀의 숲이다.
2. 창콤을 통해 보는 다려도와 어우러진 석양이 비경이다.



가능한 특별한 감성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창콤’은 제주 조천읍 북초리 393번지 해안 연장선 20m에 위치한다. 창을 뚫어놓은 것 같은 기암으로, 창콤을 통해 보는 다려도와 어우러진 석양이 비경이다. ‘창콤알’이라는 주변 조간대는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셀프샷 추천 스폿

- 창콤바위 자체가 감성샷
- 편백나무길

#여행지와 어울리는 음악은

우효 **아이유**
 <민들레> <팔레트>
 여성의 목소리가 감미로움 선사하는 곡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면 좋을 영화&책

행동에 제약이 늘고 활동 범위가 좁아진 요즘, 새해 출발선 앞에 선 이들을 위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영화와 책을 준비했다. 우울한 생각은 이제 그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새해 아침은 언제나 눈부시다.

글: 편집실 사진: 각 배급사/출판사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 〈세렌디피티〉



7년 만에 운명적인 사랑과 재회한다는 모티프로 화제가 됐던 영화다. 이야기의 시작은 달콤한 뉴욕의 크리스마스이브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애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조나단과 사라. 선물로 마지막 남은 장갑을 동시에 잡으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된다. 크리스마스에 뉴욕 한 가운데에서 남녀가 만난다는 설정 자체가 상당히 로맨틱하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들뜬 크리스마스 분위기에서 서로의 매력에 빠진다. 각각 애인이 있지만 '세렌디피티'라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게 된다. 즐거운 저녁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헤어지는 두 사람. 이때 한 눈에 사랑에 빠진 조나단은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평소

운명적인 사랑을 원하던 사라는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거라며 미래에 맡길 것을 말한다. 조나단과 사라는 서로를 완전히 잊은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한 둘은 7년 전 뉴욕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뉴욕으로 향한다. 각박한 현대인에게 달콤한 러브스토리를 선사해주는 영화. 2021년 로맨틱한 사랑을 기대하는 이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스토리나 배우들의 연기, 연출, 영상미, OST까지 영화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작품이다. 영화는 서로 상반된 환경에서 사는 두 남자가 만나 2주간의 내기로 시작된다. 필립은 상위 1% 백만장자이지만, 하루 24시간 돌봐주는 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불구이다.

어느 날 필립은 가진 것은 건강한 신체뿐인 하위 1% 무일푼 백수 드리스를 만난다. 필립은 거침없고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드리스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특별한 내기를 제안한다. 2주 동안 필립의 손발이 되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 자신을 간호하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고 한다. 참을성이 부족한 드리스는 오기가 발동해 엉겁결에 내기를 수락하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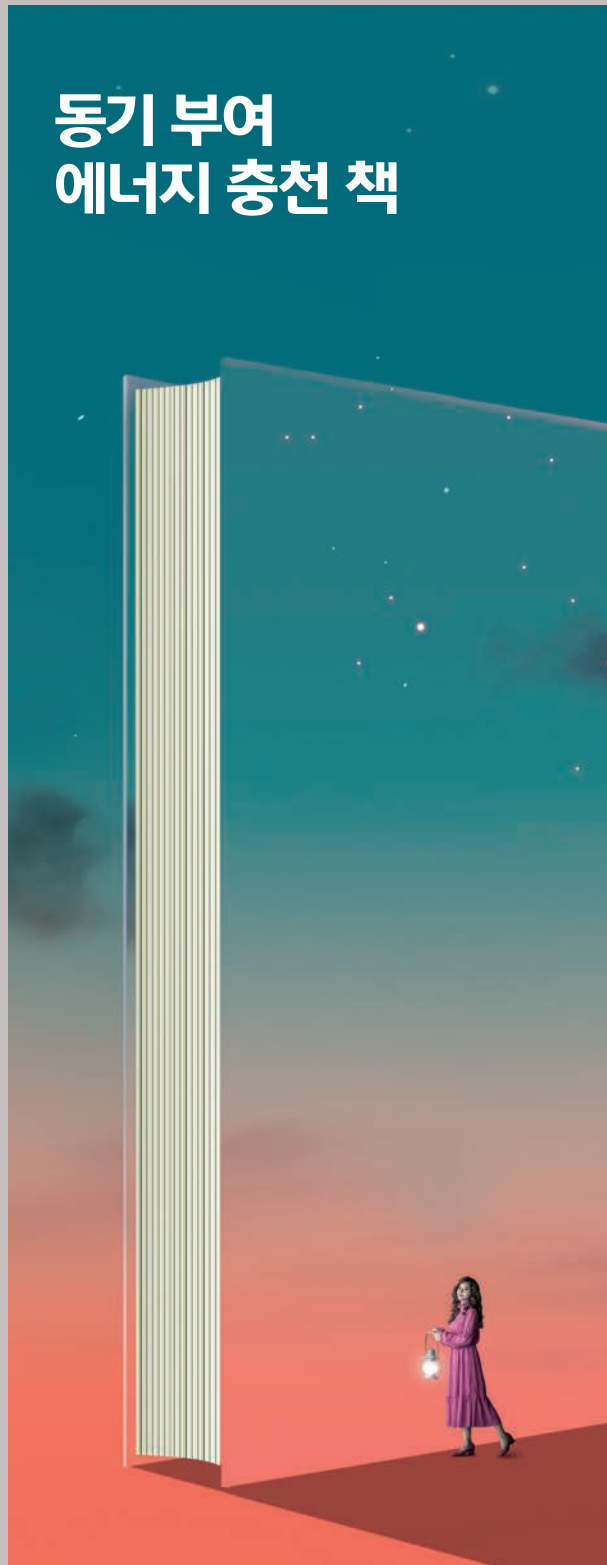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둘이 일상을 함께하며 필립의 삶은 드리스를 만난 전, 후로 달라진다.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필립은 죽기만을 기다렸다. 돈 때문에 수발을 시작한 드리스도 필립의 매력에 빠져든다. 시간이 지나며 둘은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된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에 대해 묻게 해주는 영화다.



귀족남과 무일푼의 만남 〈언터처블: 1%의 우정〉



동기 부여 에너지 충전 책



《시작의 기술》

새해마다, 1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서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100번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된다는 걸 알지만, 1만 시간을 연습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지만, 결국 처음 한 번의 시작이 없으면 ‘말짱 낱’인 것이다. <시작의 기술>은 그 처음 한 번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한 기술을 전한다. 그 기술이 어찌나 신룡한지 입소문만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미국 독립출판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제 네 인생 좀 그만 망쳐!” 표지 카피에서 알 수 있듯, 책 속에는 뻘한 위로의 말이나 사탕발림은 없다. 대신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부정적 독백을 멈추고 내 안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술을 전한다.



개리 비숍 저 / 이지연 역 | 웅진지식하우스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읽는 책’부터 ‘싸우러 가기 전에 읽어둘 책’까지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선 이들을 위한 맞춤 처방전이 책 한 권에 다 들었다. 20년 차 출판편집자이자 다독가인 저자가 다양한 고민을 풀어줄 52권의 ‘해결 책’을 소개한다. 추천 도서 중 8할은 제목만 들어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고전이지만 걱정은 접어둬도 좋다. 고전은 웬지 무겁고 딱딱할 것 같다는 편견을 유머와 유티트로 뒤집었다. 고전 속 문장들이 삶이 힘겨울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튼튼한 닻이 되는 건 알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 그럴 때 읽는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는 숨만 쉬어도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



이수은 저 | 민음사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당장 자살하겠소.” 낯선 남자가 찾아와 대뜸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 마음을 돌리려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말 것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윌 듀런트가 그랬다. 하지만 설득에 실패했고, 같은 해 낯선 이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몇 차례 더 받았다. 그는 당대 지성인들과 이심오하고 장황한 질문의 답을 찾기로 했다. 그렇게 유명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마하트마 간디, 버트런드 러셀, 조지 버나드 쇼 등에서 답장을 받았다. 이 책은 전 세계 셀러브리티의 삶의 이유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답변을 엮은 것이다.



윌 듀런트 저 / 신소희 역 | 유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그게 되겠어?’라거나 ‘그건 무리야’라고 자기 검열을 한다면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보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로 말이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는 ‘말괄량이 삐삐’를 탄생시킨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동화 12편을 엮은 동화집으로, 매 작품에 삐삐 못지않은 개성파 주인공이 등장한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하는 아이, 저주를 퍼붓는 아이, 위험한 경쟁에 뛰어드는 아이... 교과서 속 착한 아이가 아닌 조금은 삐뚤고 엉뚱한 아이들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아이가 깨어난다. 그러고는 외친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 일론 비클란드 그림 | 창비

《곤충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생존이 숙제가 된 시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채워나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우수 ‘생존 모델’을 소개한다. 고생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존재, 바로 곤충이다. 곤충은 가장 작은 생태 수호자로 4억 년 전 지구에 첫발을 내디딘 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종(種)과 개체 수를 늘려왔다. 작은 몸 전체에 폭발적 생명력과 생존의 지혜가 가득하다. <동물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를 통해 ‘동물 박사’로 자리매김한 저자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곤충들의 생존 지혜를 전한다.



송태준 저/신지혜 그림 | 유아이북스

《내가 너의 첫문장이었을 때》

에세이도 새벽 배송되는 시대. ‘책장 위 고양이’는 일곱 작가의 에세이를 매일 오전 6시에 내 이메일로 보내주는 ‘글 배송’ 서비스다. 김민섭, 김흔비, 남궁인, 문보영, 오은, 이은정, 정지우 등 독자들이 사랑하는 국내 작가가 돌아가며 고양이, 작가, 친구, 방, 뿌팟퐁커리, 비, 결혼, 커피, 쓸데없음 9개의 일상적 주제로 글을 썼고, 3개월간 63편의 에세이가 배송됐다. <내가 너의 첫문장이었을 때>는 63편의 연작 에세이를 엮은 책이다. 독서라는 좋은 습관을 시작하기 좋은 새해. 호흡이 긴 책 한 권에 손이 가지 않는다면 짧은 단편으로 긴 여운을 주는 에세이를 읽으며 일곱 작가와 소곤소곤 수다를 떨어보는 건 어떨까.



김민섭, 김흔비, 남궁인, 문보영, 오은 저 외 2명 | 웅진지식하우스

키워드로 보는 2021년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또 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원한다. 2021년을 이끌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정자은 참고 <트렌드코리아 2021> 외 다수

브이노믹스

브이노믹스(V-NOMICS)는 바이러스(VIRUS)의 V와 경제(Economics)를 결합한 단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21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은 키워드다. '바이러스가 바뀌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도 담는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로 양적 축소가 불가피하다. 질병 확산이 완화된 경우에는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보복 소비는 외부 요인으로 억제된 소비가 한 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롤코 라이프

2021년에는 우르르 몰려가 타고 금방 끝나는 롤러코스터의 특성을 닮은 소비트렌드인 '롤코 라이프(On This Rollercoaster Life)'가 전개된다. 이런 흐름은 새로운 세대적 문화가 빠르고 짧은 요즘 문화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보는 요즘 젊은 세대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유행하는 이벤트나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합류한다. 또 상식적인 예측의 범위를 넘어 짧은 변주와 이색적인 컬러버레이션을 선호한다. 유행이 끝나면 바로 하차한 후 다음 유행으로 서둘러 갈아탄다.

자본주의 키즈

자본주의 요소에 익숙한 MZ세대가 소비의 주체가 된다.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고 자본주의적 생리를 잘 이해하는 소비자가 주류화되는 것. 이들을 자본주의 키즈라 부른다. 이들은 물건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방식이 남다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의 상거래가 활발했다. 이제는 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세포마켓'이 활발해지다, 최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방식으로 진화했다. 자본주의 키즈에게 중고 거래는 몇 번을 사고팔아도 '신상' 못지않은 대접을 받는 'N차 신상'을 의미한다.

일루미네이팅, 얼티미트 그레이

미국의 색채 전문기업인 팬톤은 2021년에 유행할 컬러로 일루미네이팅(화사한 노랑)과 얼티미트 그레이를 선정했다. '일루미네이팅'은 화사한 노란색이다. 태양의 힘이 스며든 따뜻하고 밝은 노란색 그늘을 뜻하며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얼티미트 그레이'는 묵묵히 해변을 지키는 자갈을 닮은 색으로 평온함과 안정감, 탄력성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희망과 긍정, 신뢰, 회복을 상징하는 두 색상에게 시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pandemic)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로,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규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18년 스페인독감 이후 2020년 3월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팬데믹은 생태학적 팬데믹으로, 기후 변화가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타트업>과 <전지적 참견 시점> 속 모두의 간식 '핫도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공식품 중 하나라는 소시지.
인류가 언제부터 소시지를 먹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소시지의 탄생으로 핫도그도 생겨난 것만큼은 확실하다.



글. 편집실 참고. <세계 음식명 백과>, <1%를 위한 상식백과> 외 다수



Ahe)가 야구장에서 소시지를 빵에 끼워 팔면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린 것은 1902년 뉴욕 자이언트의 야구경기가 끝난 후부터이다. 그 경기장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이 '닥스훈트 소시지'를 '뜨거울 때 드세요!'라고 외치며 팔았던 것이, 핫도그로 불리게 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청춘과 어울리는, 인싸 간식

핫도그는 계속 진화 중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서 핫도그는 누구나 구매하기 쉬운 대중적인 간식 중 하나로 소개된다. tvN 드라마 <스타트업>은 젊은이들의 창업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핫도그는 추억의 매개체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핫도그 가게를 드라마 전개에 중요한 장소로 설정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브랜드 핫도그가 한때 유명세를 치렀다. 개그우먼 이영자가 종류별로 핫도그를 구매하고 이에 맞는 각각의 소스까지 소개됐기 때문이다.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부터, 고구마, 감자, 먹물, 가래떡 등의 다양한 식재료가 접목된 부분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기다란 빵에 소시지를 꽂아 팔던 외국식 핫도그가 국내에서는 한국형 핫도그로 꾸준히 변화한다는 점이 재미있다. 한때는 500원에 팔던 핫도그지만,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1000~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간식은 변하지 않았다. SNS에서는 핫도그와 떡볶이의 조합이 유행하기도 했으며, 그 방식과 팀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축제/스포츠 경기 등

핫플레이스에서 유래된 간식

핫도그는 굽거나 찌서 익힌 소시지를 전통적인 핫도그빵에 끼워 먹는 음식이다.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나 비엔나소시지가 주로 쓰인다. 소스는 케첩과 겨자 소스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의 핫도그는 나무젓가락에 소시지를 끼워 튀겨낸 형태로 많이 인식되어 있다. 핫도그의 역사를 연구한 부르스 크래그(Bruce Kraig)에 따르면,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컬럼비아 엑스포(the Colombian Exposition)에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는데, 당시 길거리 수레에 엄청난 양의 소시지를 팔았다. 이때 일부 독일 이민자들이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 팔았고, 여기에서 핫도그가 시작되었다는 설이다.

또 1893년 세인트루이스(St. Louis)의 메이저리그 야구단 브라운스(Browns)를 소유하던 독일 이민자 크리스 폰 드 아헤(Chris Von 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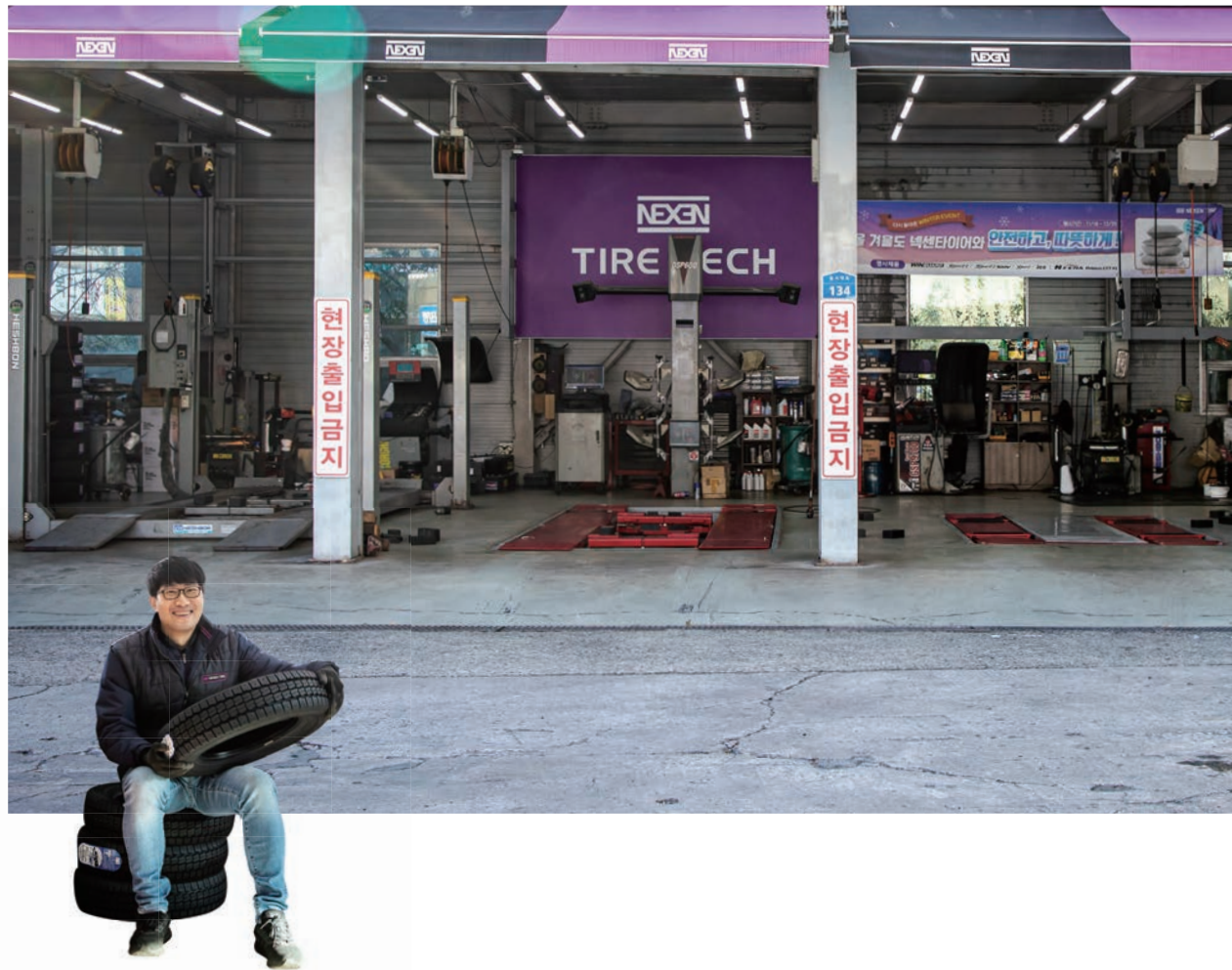
충남 천안시 타이어테크 서북구점 신뢰에서 확신으로 지역민이 믿고 찾는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테크 서북구점은 천안시 최초의 브랜드 타이어 1호점이다.
2006년도에 오픈해 지금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이 넥센타이어로 브랜드를 바꾼 것은 2020년 4월의 일이다.
지역민들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넥센타이어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서북구점 홍성일 대표를 만났다.

글. 이경희 사진. 장은주



서북구점
홍성일 대표



안녕하십니까? 타이어테크 서북구점의
 홍성일입니다. 올해로 16년째 브랜드 타이
 어 전문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저희
 는 지금부터 8개월 전에 넥센타이어로 간판
 을 바꿔 달았습니다. 타브랜드 전문점에서
 개인 매장으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바꿔 넥
 센타이어와 손을 잡은 것은 기존 브랜드와
 는 다른 확실한 넥센만의 파트너십 때문이
 었습니다. 영업사원과 유대감을 가진 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대화로 풀어가면서
 점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
 려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넥센타이어로 바뀐 이후 초기에는 기존
 고객들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왜 바꿨나?”하는 것들이었죠.
 연령대별 반응도 조금씩 달랐지만, 제품을
 써본 후의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젊은 층
 은 아무래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
 고 긍정적입니다. 40대는 꼼꼼히 따져보시
 고, 50~60대는 선택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
 합니다.

Map

타이어테크 서북구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34
 영업시간: 평일 08:30~19:30
 문의: 041-592-9880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
 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
 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설득이 중요했습니
 다. 자신 스스로를 영업하겠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제가 느
 꼈던 장점과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렸
 습니다. “저를 믿고 새로운 제품을 써보세
 요. 절 한번 믿어주십시오”라는 말씀도 정
 말 많이 드렸죠.
 제가 손님을 대하는 철칙은 하나입니다. 한
 번 오신 손님은 반드시 재방문을 하도록 하
 겠다는 거지요. 상세한 설명과 궁금증에 대

한 정확한 답변은 기본입니다. 고객의 성함
 과 차번호를 조합해 저장하고 타이어는 물
 론, 정비부터 오일,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차에 대
 해서 어려워하시는 여성고객분들이 반가
 워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넥센타이어의 엔페라 프리미스
 AS T1 모델을 정말 좋아해서 매우 적극적
 으로 손님께 추천하는데요. 2021년에는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가치가 좀 더 올라가
 영업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EXEN TIRE

뉴스클립

넥센타이어, 스페인 완성차 업체 세아트 '레온'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친환경 및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엔블루 S' 장착

넥센타이어가 스페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세아트'의 '레온(Leon)' 차량에 '엔블루 S(N'Blue S) 제품을 공급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레온'은 1999년 첫 출시 이후 2백만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세아트의 대표적인 베스트 셀링카다. 폭스바겐 그룹의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주행 성능과 효율성으로 세아트를 대표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레온에 공급되는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S'는 친환경 차량 및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로 유럽의 강화된 CO2규제에 대응해 타이어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했다. 차량의 소음과 연비 개선을 위한 사이드 월 공기 역학(Aero Dynamic)을 당사 최초 적용해 연비 등급 뿐만 아니라 유럽환경규제의 한 기준인 주행 소음(Pass by noise)도 저감하였다. 특히, 기존 제품 대비 간결한 그루브 디자인으로 고속 배수성과 빗길 제동력을 강화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세아트를 비롯해 포르쉐, 폭스바겐, 스코다, 르노, FCA(피아트/크라이슬러), 미쯔비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며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 체코 아이스하키팀 BK 블라다 볼레슬라프 후원 연장

- 유럽 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넥센타이어가 체코의 아이스하키팀인 BK 블라다 볼레슬라프(BK Mlada Boleslav)와 후원을 재연장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BK 블라다 볼레슬라프' 구단은 1908에 창단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으로 체코의 최상위 리그이자 세계 최고 아이스하키 리그 중 하나인 엑스트라리가(Extraliga)에 속해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4년에 BK 블라다 볼레슬라프와 처음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이번 3번째 연장을 통해 2021/22년 시즌까지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시즌에 이어 BK 블라다 볼레슬라프의 홈 경기장인 Ško-Energo Aréna의 빙판 및 펜스를 통해 브랜드를 노출하고 선수들의 헬멧과 유니폼 바지, 선수 벤치 등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한, 공식 파트너사로서 체코를 비롯한 유럽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9년 체코에 위치한 유럽 공장을 준공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완성했으며 하키, 축구 등 유럽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넥센그룹, 정기 임원 인사 단행, 8명 승진 발령

- 넥센타이어(주), BG장 1명, 신규 임원 3명 등 4명 승진

- (주)넥센, 전무 2명, 신규 임원 2명 등 4명 승진

넥센 그룹이 2020년 11월 30일 글로벌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넥센 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넥센타이어(주)는 CP(창녕 공장)생산BS장을 맡고 있던 조상문 BS (Business Sector)장을 글로벌 생산 BG(Business Group)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김대중 유럽 영업1 BS장, 김종명 선행연구 BS장, 노재훈 미국법인 마케팅담당을 신규 임원으로 위촉했다. 조상문 BG장(사진)은 1989년 생산팀으로 입사한 이후, 2007년 생산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창녕 공장 생산 담당을 맡아왔으며, 이번 글로벌 BG장 승진으로 국내 공장과 중국 공장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주)넥센은 청도넥센상교 총경리를 맡고 있던 신용우 상무를 전무로,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던 문성희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설점수 청도넥센상교 생산담당과 강동조 Logis사업부 물류운영담당을 신규 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2020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 라운드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개최

- 최종라운드에 총 9개 클래스, 150여대 차량 출전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20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최종라운드가 지난 11월 14일과 15일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태백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됐다. 지난 7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5라운드로 진행되는 '2020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에는 총 9개 클래스, 150여대 차량이 출전하며 2020시즌 챔피언 자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불꽃 튀는 순위 경쟁이 펼쳐졌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라운드에 이어 무관중 대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라운드 또한 상시 발열 검사, 경기장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절차와 함께 운영되었다.

넥센타이어가 2006년부터 15년 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넥센스피드레이싱 대회는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의 레이싱 대회이며,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모터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동료와의 소중한 추억 소개 -

- 가족과의 특별한 사연 소개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신년호 웹진 구독 신청 이벤트

헬로우 넥센 웹진 구독 신청을
해주시는 분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기프트콘 증정)
- *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퀴즈 당첨자>
이현수, 이종국, 양창호, 정해수

www.nexentire.com

N FERA

Primus AS T1



승차감의 새로운 솔루션



다양한 드라이빙
환경에서 느껴지는
안락한 승차감



사계절
오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마모 성능



고급 세단을 위한
럭셔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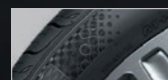
최적화된 피치 배열을
통한 소음 제어 및
우수한 승차감 구현



콜링핀 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인
열 배출을 통한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 강화 및 마모성능 향상



사이드월 부 유려한 씨클
웨이브 기법으로 제품의
컴포트 속성 구현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 제품 4개 구매 시 보증서 1매 제공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
(www.nexentire.com)내 보증제도 안내 내용 참조



NEXEN NEXEN TIRE



NEXEN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NEXEN
TIRE



NEXEN NEXEN TIRE